



'와락' 행사 첫 순서로 진행된 율동레크리에이션에서 참가자들이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4월 23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맞이에는 500여명이 함께 어울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사 신도단체에서 10개 팀을 구성해 공연과 열린 응원전을 전개했다.



조계사 어머니합창단이 가발과 분장을 하고 에어로빅 댄스를 선보이고 있다.

신명나는 봉축 시작! 조계사 신도 어깨춤 들썩~

조계사, 4월 23일 봉축 선포 ... '서로끌어안기 와락' 개최

"황진이~ 황진이~ 황진이~" 시골 장터에서나 나올 법한 노랫가락이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서 울려 퍼진다. 모인 불자들은 운율을 흔들며 신나게 춤을 춘다. 부처님오신날을 40여일 앞둔 4월 23일,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는 신명나는 어울림 한마당이 펼쳐졌다. 서울 조계사(주지 토진)는 이날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부처님오신날 봉축선포식과 함께봉축맞이 축제 '서로끌어안기 와락'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계사 신도들의 장기 자랑과 먹물거리 장터, 캐리커처 그리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조계사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노래소리에 견지동 거리를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행사에 동참했다. 조계사 신도를 비롯한 500여 대종들로 조계사 앞마당은 종일 북적였다. 행사는 조계사와 자매결연 지자체인 전남 함평군에서 보내온 나비 1000여 마리를 방생하는 법회로 시작했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열리는 함평 나비축제 성공과 2012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의

미였다. 방생된 나비는 2012함평나비축제의 주인공 나비인 남방제비나비를 비롯한 4종의 토종나비였다.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과 안병호 함평군수 등 참가대중은 나비를 날리며 저마다의 소원을 빌었다. 안병호 함평군수는 "지난해 조계사 국화전으로 함평 국화가 널리 알려져 감사하다. 이번 나비축제도 조계사와 함께 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함평군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을 돕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가한 조계사 화화나무합창단 총무 평등화 오예숙(68) 씨는 "사중에서 수백의 나비들이 일제히 날아가는 모습이 마치 부처님이 오실 때 내린 꽃비와 같아 보여 가슴이 뭉클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오 씨는 "60세가 넘는 합창단 어르신들이 조계사 연등공방에서 연등 제작에 동참하는 등 조계사 대중들이 심시일반 힘을 보태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고 있다"며 조계사 신도들의 봉축준비를 소개했다. 나비 날리기 행사로 다소 어지러워진 장내가 정리되자 이상중 연등축제 기술 감독

의 재치 있는 사회와 함께 신도 장기자랑이 시작했다.

"자, 지금부터 서로 끌어안기 '와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와락! 안아주세요. 아... 처음 보신분이라 조금 그런가요? 어때요~ 조계사 식구들인데! 꼭! 안아주세요! 와락!"

부처님오신날까지 봉축주간 설정
동자승 삭발식, 자비바자회 등 마련
22일부터 매주 일요일 무료 진료
종로노인복지관에 1억5천만원 전달

행사 첫 번째 순서는 조계사 전법본부 소속인 청년회의 봉축 율동 레크리에이션이었다. 참가대중은 청년회 청년들의 지도 아래 봉축 주제가인 '연등을 든다'에 맞춰 흥겹게 율동을 배웠다. 이어 진행된 장기자랑에는 조계사 신도회 소속 신도들이 10개 팀을 구성해 그동안 갈고닦은 솜씨를 뽐냈다. 이들은 찬불가를 비롯해 대중가요, 개그콘서트 패러디 공연, 댄스공연 등을 선보였다.

안재형 조계사 행사기획팀 주임은 "이번 행사는 조계사 신도단체가 전법본부, 소임본부, 교육법회본부, 지역신행본부 등 4개로 나뉘어 이후 첫 행사"라며 "신도단체가 커지며 신도분들이 사중에서 일을 하면서도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행사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기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이날 장기자랑에서는 '밀양아리랑', '아리랑'과 찬불가 '우리도부처님같이'에 맞춰 댄스를 선보인 지장봉행팀이 1위를 차지했다.

지장봉행팀 총무 지수 박수경(46) 씨는 "주지 스님이 항상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어서 '우리도부처님같이'에 맞춰 춤을 준비했다"며 "엄숙하지만 한 지장재일법회를 진행하다가 모처럼 밝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푸는 기회가 됐다"고 밝게 웃었다.

한편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특설무대 옆에 마련된 행사장에서는 장기자랑 외에도 '진남 우수 관광 상품 축제 한마당'도 함께 열렸다. 조계사와 전남 공예조합, 강진군이 함께 전남 관광 상품 홍보 및 판로 개척을 목적으로 연 농산물 직거래장터였다. 농산물 직거래장터에는 15개 업체가 40여 농산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가운데)과 참석 내외빈들이 함평 나비를 방생하며 봉축을 선포하고 있다.

품을 판매했다. 직거래장터에서 차 시음회와 야생차만들기 코너는 큰 호응을 얻었다. 또 행사장 한편에서는 이동수, 김용민, 정태권, 하재욱, 이용호, 최민 씨 등 언론매체 시사 만화가들이 참여해 불자들의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내 얼굴에 담긴 부처님의 미소'도 진행됐다. 한편 조계사는 이날부터 부처님오신날까지 기간을 봉축주간으로 설정하고 동자승 삭발식, 자비바자회, 봉축30일기도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조계사는 2012년 봉축 주제인 '함께하는 나눔, 실천하는 수행'에 맞춰 4월 2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서울종로노인복지관(관장 정관)에 기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또 22일부터 매주 일요일에는 한의사불자연합회(회장 정지천·이하 한불연)와 함께 조계사 100주년기념관에서 한의원을 열고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모집

집중 5일 완성
저자: 법화종현(정영교) 크스님 직강

· 자비실천불교연합회장
· 연화사 불교대학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궁법 창시자

저자전화
010-7415-0803

세계제일 적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궁법

서울 경기 전국 학인 대모집

대전광역시 소재 연화사

강의 일정표

- ◆ 제1일 - 구단 구궁의 제법칙
- ◆ 제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3일 - 부교재 중심 (일련의사태 해설)
- ◆ 제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궁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신문, 인터넷, TV, 유·무선 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력하면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최고수로 가는길!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표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